

## 민간 참여 활성화 및 정책 이해도 제고 ITS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개요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는 오는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ITS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60명을 대상으로 '2026년 ITS 정책·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민간에 상세히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ITS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 2026년 ITS 주요 사업 및 정책 발표

설명회 본 세션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주요 관계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올해 추진되는 ITS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우선 도로 ITS 구축 및 운영 분야에서는 국도 ITS 위탁사업과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공고 일정을 공유하여 민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및 표준화 분야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 사업의 추진 계획과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 사업,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ITS 표준화 사업 계획도 상세히 안내한다. 아울러 국제 협력 및 지원 분야에서는 내년으로 다가온 강릉 ITS 세계총회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별도의 기업 지원책을 소개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행사개요

구분	내용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일시/장소	'26년 4월 17일(금) 14:00~17:40 / 건설회관(논현동) 2층 중회의실
참석대상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ITS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60명
주요내용	2026년 ITS 주요 구축사업 계획 발표 및 민간 협력방안 논의

## 민간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국도교통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ITS 장비 제조, 솔루션 개발, 시스템 통합(SI)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행사의 참가를 희망하는 관계자는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10	• 개회사	ITS 협회장
14:10 ~ 14:40	• 국도 ITS 위탁사업 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강우석
14:40 ~ 15:10	•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 추진계획	한국도로공사 임도훈
15:10 ~ 15:40	• 교통량조사 사업 추진계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대철
15:40 ~ 15:50	• 휴식	
15:50 ~ 16:20	• 도로대장 디지털 전환 사업계획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원근
16:20 ~ 16:35	• ITS 표준화 사업 추진계획	ITS 협회 김경환
16:35 ~ 16:50	• 강릉 ITS 세계총회 추진계획	강릉총회 조직위원회 이상원
16:50 ~ 17:05	• ITS 협회 회원사 지원계획	ITS 협회 김수지
17:05 ~ 17:30	•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	ITS 관계기업
17:30 ~ 17:40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디지털도로팀장

## AI가 시민 일상으로 빠르게, 우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2026. 3. 5.(목)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 공모 개요

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전남권: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경북권:대구)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사업, (전북권:완주 / 경남권:창원) 피지컬AI 기반 제조혁신 지역 AX 사업

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

\* (공모일정) 공고(3.6) → 제안서 신청·접수(5.18~22) → 평가 및 선정(6월),  
(설명회) 3.11(수)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I: AI Transformation)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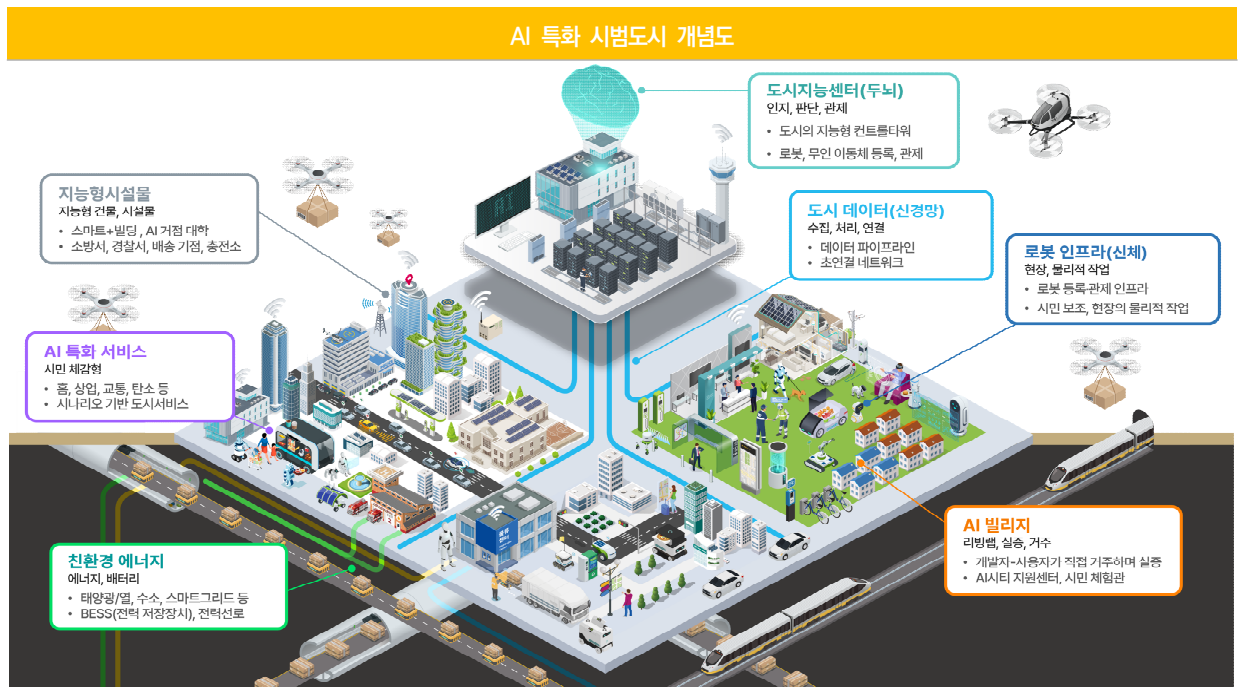
## 주요내용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국비 20억원)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새만금 로봇·AI·수소 생태계 조성 "현대차그룹 국내 최초 대규모 지방투자", '26.2.27)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섬 배송·재난 대응까지 드론 활용 확대 드론 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2026. 3. 11.(수)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공모결과

이번 공모(1.7~2.5)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지역 내 공공서비스 등에 실증·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1.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분야 및 참여 지자체**

AI 기능 유형	선정 지자체	
K-드론배송 상용화 (25개 단위사업)	기존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이천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경기 안양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보령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주시, 경남 통영시*, 울산 울주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신규	수원특례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논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4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8개 단위사업)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평택시,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 2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지자체

**2.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모터·배터리)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분야 및 참여 기업**

분야	세부사업(선정 수) 및 대표사업자			
5대 완성체 상용 개발 (8개 사업자)	소방(1)	엔젤릭스	항공안전(1)	엔에이치네트웍스
	물류(1)	나르마	농업(2)	볼로랜드, 서우
	시설관리(3)	시에라베이스, 어드바이저로렌, 파블로항공		
부품국산화 (4개 사업자)	모터(2)	케이알엠, 에이력스	배터리(2)	LG엔솔, 비이아이
핵심기술상용화 (7개 사업자)	총돌방지(2)	탑스커뮤니케이션, 유비파이	항재밍장치(2)	에이디시스템, 다번치랩스
	영상송수신장치(3)	쿠오핀, 아스트로엑스, 프리뉴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 드론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에 선택·집중으로 산업·재난 현장의 노동집약적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의 효과적인 작업·관리 등 국가 드론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 지원

## 교통·환경·안전 도시 문제, 인공지능으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2026. 3. 12.(목)

### 사업개요

교통 혼잡, 기후위기,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 '26년 강소형 지원사업의 경우, '25년 하반기에 기선정(전남 순천, 경북 안동, 충북 제천)

### '26년 거점형·특화단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2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 공모일정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금)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 '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 유형별 주요 내용(강소형)

구분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내용	친환경·탄소중립 기반, 기후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등)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 新 모빌리티 공간수요 반영, 지역교통 문제 해결 지원
대상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이동은 더 편리하게, 도시는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2026. 3. 12.(목)

화성시 일대\*가 자율주행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경찰청,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교통약자 이동지원, 노면청소, 도로 점검 등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안전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화성시 서부권(남양읍, 새솔동, 송산면, 마도면 일대), 구역 36.13km<sup>2</sup>, 노선(연장) 46.5km

### AI 자율주행 허브 개소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AI 자율주행 허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송옥주 국회의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화성특례시 부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개소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함께 전시할 계획으로, 부처 협업의 성과를 선보이고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 ① 교통약자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③ 공유차, ④ 도시환경관리, ⑤ 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⑥ 응급환자 이송차량, ⑦ 마을버스, ⑧ 순찰차 순찰로봇

이날 사전시승 행사로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차량에 김윤덕 장관이 시험운전자로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이동하였다. 해당 차량은 교통소외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신호, 차선 등이 없는 비정형도로까지 운행 가능한 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개발)이 탑재되어 있다.

## 자율주행 허브 역할

자율주행 허브는 아직 불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관제센터로서 화성시 일대의 교통흐름, 도로상태, 객체인지, 신호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율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교통약자, 교통소외지역의 이동지원을 비롯해 노면청소, 도로 모니터링 등의 도시관리까지 일상 속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증으로 자율주행 공공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확산을 도모한다.

아울러, 기술 완성도가 낮은 새싹기업(스타트업), 대학(원), 연구기관 등을 위한 기술실증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자율주행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하반기부터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축적과 AI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라는 두 축을 원동력 삼아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명	서비스 실증계획	서비스 구간	자율차(65대)
<b>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모빌리티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li> <li>•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li> </ul>	'26년 4월(10대)	-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및 주변 리 지역(51.7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니발 5대</li> <li>• 아이오닉5 5대</li> </ul> 
<b>실시간 수요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빌리티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이용자의 통행패턴을 기억하고 학습하여 최적화된 동적 경로로 고객을 운송하는 서비스 (First-and-last mile DRT 서비스)</li> </ul>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5대)</li> <li>• 12월(10대까지 잔여차 순차적 확대)</li> </ul>	-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2.1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니셔틀 15대</li> </ul> 
<b>공유차(Car-Sharing)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차량을 특정 시간 동안 대여하여 출발지-목적지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li> <li>- 차량 픽업 없이 차량이 콜 지점으로 찾아오는 서비스</li> </ul>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분기(8대)</li> <li>• 3분기(2대)</li> </ul> '27년(10대)	- 화성시 새솔동~남양읍~마도산단~바이오산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레스 EVX 20대</li> </ul> 
<b>도시환경관리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노면청소 차량 운영</li> <li>• 도로 노면청소 + 미세먼지 공기청정 차량 운영</li> <li>• 방역/소독 차량 운영</li> </ul>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노면청소 1대),</li> <li>• 5월(복합기능 2대),</li> <li>• 6월(방역소독 1대),</li> <li>• 4분기(미세먼지 1대)</li> </ul>	- 화성시청(남양읍) ↔ 송산, 마도(산단), 새솔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관리 차량(봉고 EV) 5대</li> </ul> 

서비스명	서비스 실증계획	서비스 구간	자율차(65대)
<p><b>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 및 긴급복구 지원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취약구역 선정, 취약구역 · 인프라 모니터링</li> </ul>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분기(1대)</li> <li>• 4분기(1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산 그린시티~새솔동~화성 시청~마도산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리아 2대</li> </ul> 
<p><b>자율주행 Lv4/4+ 기반 긴급차량 통행지원 서비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앰블런스 응급 이송 지원 서비스 (환자이송, 응급처치)</li> <li>• 현장대응 통행지원 서비스(단속, 사고, 현장대응)</li> </ul>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응급이송 2대),</li> <li>• 7월(현장대응 2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시 남양, 송산, 마도, 새솔 및 화성시(항남 등)~수원시(권선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앰블런스 2대</li> <li>• 현장 대응 차량 2대</li> </ul>  
<p><b>지정노선 기반 다목적 자율주행 중형버스 차량 플랫폼 (산업부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노선 기반으로 하는 중형버스 (마을버스)</li> </ul>	<p>'26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11월(노선버스 2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솔고~남양로~화성시청(화차) ~ 남양로~새솔고 노선 구간(약 28k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형 저상 전기버스 2대</li> </ul> 
<p><b>능동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 서비스 (경찰청 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순찰차 및 순찰로봇</li> </ul>	<p>'27년</p> <p>7월~12월 (순찰 5대, 로봇 2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6년 하반기 실증 계획 수립 예정(관할 경찰서 협의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주행 교통순찰차(MPC) 1대</li> <li>• 소형 자율순찰차(SPC) 4대</li> <li>• 소형 자율순찰로봇(SPR) 2대</li> </ul>  

## 자율주행차 안전·보험·운영 통합 지원 'K-자율주행 협력모델' 기업 선정

국토교통부, 2026. 3. 9.(월)

### 개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 협력내용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였으며, 공모 접수(1.30~2.12) 결과 3개 분야에 총 11개 기업(자동차 1개사, 보험 5개사, 운송플랫폼 5개사)이 참여하였다.

자동차제작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전용차량(SDV)을 개발·공급하고, 차량 정비 및 개발 인력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사로 선정된 삼성화재는 자율주행 사고당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 수준의 보상한도를 제시하여,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안정적인 보장체계를 마련하였다.

운송플랫폼사로 선정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차량과 플랫폼간 연동을 통해 차량 관제, 배차 관리, 운행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 센서 및 상태 데이터 기반으로 엣지 케이스 자동 수집, 운행 품질 분석, 차량 관제 지원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